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회자 아냐...민심 따라야”

추미애 꺾고 민주당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 “여야 협의 중시하지만 합의 안되면 국회법 따라 처리”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이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며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립은 물(汝)의 가치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 단상에서만 만나는 의장, 구름 위에 떠 있는 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안에 깊숙이 발을 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나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원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에게 이득, 도움이 되는 법인데 정과, 정략적 문제로 잘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것이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건 헌법에서 정한 입법권을 부정, 침해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이 동의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국회 압수수

색이 22번 있었는데 그중에 95%가 민주당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라며 “압수수색에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꼭 필요한 일인지 살펴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이날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 의원과 5선 정성호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와 관련 “당선자들이 판단한 것이니 이 결과가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선 뒤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당심이 추 당선인에게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라는 질문을 받아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었다’라는 질문에는 “저도 (다른 당선인들과 같은) 한 표”라고만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이것이 당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의 원을 만나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 예비주자들 움직임 ‘활발’

나경원·윤상현 세미나 개최 한동훈·유승민도 보폭 넓혀

국민의힘 당권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맞을 올린 ‘황우여 비대위’가 전당대회 준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중진들이 먼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나경원 당선인은 정책 현안에 초점을 맞춰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수도권 여성 중진으로 당의 외연확장론을 뒷받침해온 데 이어 정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나 당선인은 16일 국회에서 ‘저출산과 연금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정책 행보다.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다수의 당선인이 참석해 나 의원 향후 행보에 대한 당내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나 당선인은 세미나에서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돈과 관련 없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연금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인구와 기후 문제 해결의 틀을 만드는 국가 대개조에 올인해야 하는데 특검법을 하니 마니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2대 국회가 가야 할 길은 특검 등의 정쟁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인구기후내일포럼’ 창립 준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당

내 일각에선 포럼 활동을 통해 나 당선인이 자연스럽게 원내외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힐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잠재적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은 ‘쇄신’ 이미지 부각에 힘을 쏟고 있다. 총선 이후 낙선·낙천자들과 함께 선거 패인 및 보수 혁신 방안 진단 등을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열어 당의 체질 개선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차 세미나에서도 “지금 국민의 힘 분위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공동묘지의 평화 같다”며 “전면적,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외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은 최근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한 전 위원장의 경우 총선 이후 외부 활동을 최소화한 채 개인적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공장소 ‘목적담’ 등의 형태로 언론 노출이 부쩍 잦아지고, 정치권 인사들과 만남 소식 이어지면서 당 안팎에선 그의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김성태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도서관 등 목적담을 거론하며 “출마 가능성이 없으면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지금 굳이 언론, 여론, 국민을 의식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측근들 역시 대체로 출마에 힘을 쓰는 분위기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통화에서 “당내 출마 요구 등 명분이 마련된다면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팬클럽 ‘유심조’ 회원들과 5년 만에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면서 당권 도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

NBS 조사, 尹 국정 잘한다 28%·잘못한다 6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였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p)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주 전과 동일한 64%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직전 조사(4월 3주)보다 1%p 오른 32%였다. 국정 운영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p

내린 63%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4%, 정의당 2%, 새로운미래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2%였다. 2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었고, 민주당은 2%p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총선 직후인 4월 3주와 비교해 5%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7.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화순팜

LINE-UP

베스트 선물은 다 모였습니다!

굴비세트

미니 파프리카

대추방울토마토

발효소곰

적벽한우

화순군 청정 역거리 대표 소형팜

화순팜